

아이를 위한 학교 - 운현궁 예절학교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한 공부. 인사법에서 다도, 전통놀이 체험까지 운현궁 예절학교 리뷰

“아가씨들! 도련님들! 지금부터 예절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례, 절하는 법, 전통놀이 등 우리네 전통예절과 놀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운현궁예절학교를 찾았다. 운현궁예절학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들까지 1일 3시간 정도 생활예절과 전통예절을 배우는 곳으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주로 입교한다. 운현궁예절학교에 입교하는 아이들은 수업을 받는 3시간 동안 반드시 한복을 입게 되어 있는데, 한복이 운현궁예절학교의 필수 준비물인 셈이다. 아이들 한복은 각자 집에서 준비해와 수업 중 운현궁에서 갈아입으면 된다. 예절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서로를 존대하는 법이다. 상대방에 대한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절이라는 의미에서 여자에게는 ‘아가씨’, 남자에게는 ‘도련님’이라 불러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 금방 “아가씨, 먼저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는 한 아이를 보며 예절교육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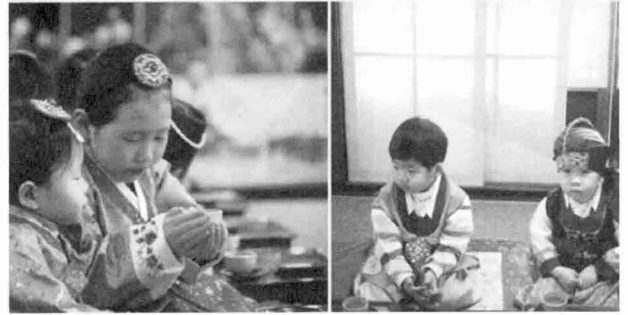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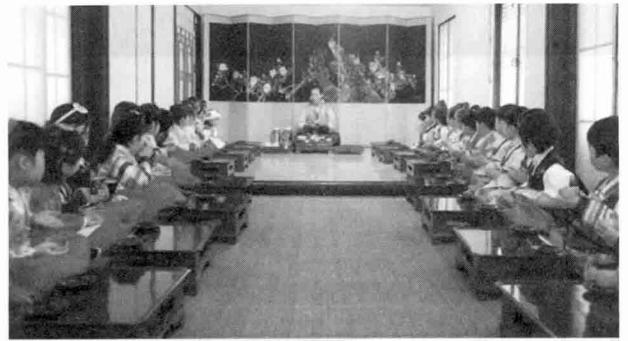


➔ 차 예절, 인사법, 전통놀이 체험 등 4가지 정규 프로그램

- 장소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로 나와 500m 운현궁 내
- 수업료 : 유치부 8천원, 초등 이상~성인 1만원 (단체 신청 시)
- 문의 : 02)766-9090, www.unhyungung.com

운현궁예절학교의 1교시는 전통차를 마시면서 배우는 차 예절 시간이다. 수업은 비단 방석과 개인 찻상이 마련된 공간에서 마주 앉은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된다. “아가씨들은 밥 안 먹는 손은 밑으로, 밥 먹는 손은 그 위에 얹은 뒤 엄지손가락을 숨기고 손을 배꼽 있는 곳에 놓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공수.’”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녹차가 우려지는 동안 선생님에게 차의 유래와 효능, 찻잔은 어떻게 드는지, 어떻게 마시는지 그리고 마신

후 어떻게 말하는지도 함께 배운다. 2교시는 큰절과 한복 입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다. 온돌방에 옹기종기 앉은 아이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서 큰절하는 법을 배우는데, 5명 정도씩 팀을 꾸려 선생님이 일일이 지도해준다. 한복 입는 법은 속치마서부터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입는



순서를 설명해주는데, 저마다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이 제대로 갖춰 입을 것인지 옷을 뒤척이느라 분주해하는 모습이다. 3교시는 직접 아이들이 만들고 꾸며보는 시간이다. 이날 아이들은 한지를 이용해 제기를 직접 만들었는데, 보통 미니 버선과 제기 만들기 2개의 프로그램이 번갈아 진행된다. 수업 중에 만든 제기는 이어지는 전통놀이 체험 시간에 앞마당에서 직접 가지고 놀 수도 있다. 운현궁 예절학교의 마지막 수업인 전통놀이 체험 시간에는 예전 양반집 자체들도 많이 즐겼던 투호를 비롯해서 널뛰기 등을 직접 운현궁의 너른 마당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1일 30명 규모의 1개 팀만 입교할 수 있어

운현궁예절학교는 1일 30명 정도로 구성된 1팀을 수업하는 것으로 운영되며, 개인별로는 진행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절학교 입교 신청을 해도 30명의 팀이 꾸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어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온라인 동호회나 학교 자모회에서 30명의 아이들을 맞춰 오곤 한다고. 팀을 꾸릴 경우 원하는 날짜에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팀을 꾸려 신청할 경우 유치부는 1인당 8천원, 초등부는 1만원이지만 개인 신청자들은 유치부나 초등부에 관계없이 1인당 1만원이다. 부득이하게 특별히 팀을 꾸릴 수 없는 개인 신청자라면 방학 때를 활용한다. 방학에는 예절학교에 입교하려는 신청자들이 많아 금방 30명 규모의 1팀이 꾸러지기 때문이다.



Tip 1. 엄마 학교

➔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한 공부. 좋은 엄마로 거듭나는 엄마들만의 공간 **엄마학교 리뷰**.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 북촌 한옥마을의 좁다란 골목길 끝에 있는 엄마학교에는 이런 고민을 가진 엄마들이 모인다.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어색한 아이, 욕을 하는 아이, 동생을 질투하는 아이 등 내 아이와 닮은 모습의 아이 엄마들이 유아의 정도를 찾고 싶어 이곳의 문을 두드린다. 몇 개월 후면 아이를 낳을 미래의 엄마도 현명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엄마라면 누구나 엄마학교의 학생이다.

- 위치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300m
- 수업료 : 좋은엄마 과정 12만원, 기본엄마 과정 5만원
- 문의 : 02)766-1963, blog.naver.com/un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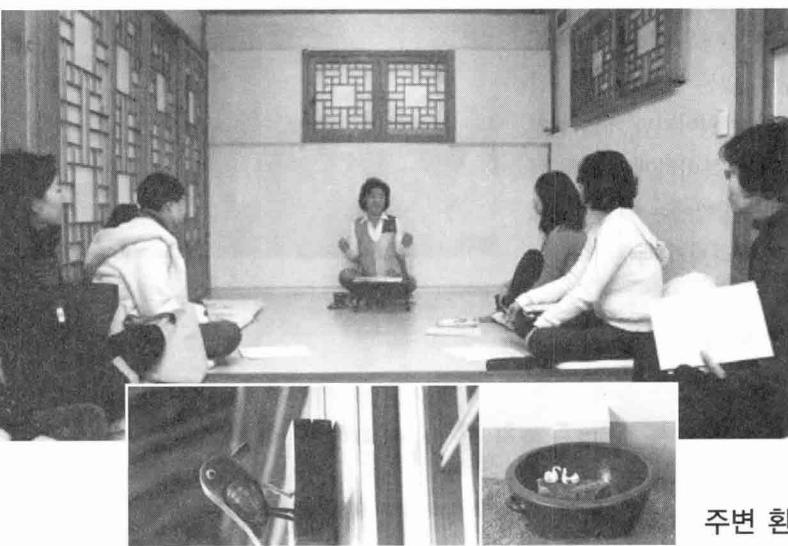


좋은 엄마 되길 바라는 그녀들만의 사랑방, 엄마학교

엄마학교도 엄연히 학교다. 1일·1개월 단위의 과정이 있고 이 과정들을 들은 엄마들이 또다시 듣는 심화반인 또봄반도 있다. 엄마학교에는 교장이자 유일한 엄마 교사인 서형숙 선생님이 있다. 혼자 꾸러가는 엄마학교에서 그녀는 두 아이를 훌륭히 키워낸 선배 엄마로서 학교를 찾은 엄마들에게 그녀의 경험과 느낌들을 전달한다. 이 점이 다른 학교와 엄마학교의 차이점이다. 엄마학교에서는 좋은 엄마, 현명한 엄마, 행복한 엄마가 되는 원리나 원칙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이곳을 찾은 엄마들보다 먼저 아이를 길러본 선배 엄마로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고 학생 엄마들과 함께 생각해볼 뿐이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고민해주고 같이 해법을 찾아간다.

엄마학교의 기본적인 코스는 매주 한 번에 2시간씩 4주간 진행되는 좋은엄마 과정과 토요일에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쁜엄마 과정 그리고 좋은엄마 과정을 이수한 엄마들의 심화반인 또봄반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좋은엄마 과정은 다정한 엄마 되기, 영리한 엄마 되기, 대

범한 엄마 되기, 행복한 엄마 되기 등 4가지 주제로 나뉘어서 서형숙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한다. 동그렇게 온돌방에 둘러앉아서 그녀가 두 아이를 키우던 이야기들을 예시 삼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엄마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다. 좋은엄마 과정을 평일 오전에 진행하기 때문에 직장맘들을 위해 개설된 것이 바로 기쁜엄마 과정. 한 달에 딱 한 번 열리는 이 과정은 좋은엄마 과정의 총론 격이다. 시간이 부족한 엄마들을 위한 서형숙 선생님의 배려인 셈.



주변 환경에서 배우는 좋은 엄마 되는 법

학교를 보면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작은 것들에게 느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도 많다. 학교 환경이 중요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엄마학교에 있는 작은 소품, 작은 글귀 하나하나에도 일상에서 좋은 엄마가 되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서형숙 선생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옥인 엄마학교의 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앞마당의 동그란 돌로 만든 징검다리도 그런 것. 아이를 키워냄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바로 이 징검다리 같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해주려 하기보다는 아이가 힘들어하고 엄마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엄마가 징검다리가 되어 아이를 이끌어주면 된다. 모든 것을 해주려는 엄마보다 아이가 혼자서도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보조자, 협조자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재미난 소품은 교실 안에서도 만날 수 있다. 창틀에 있는 작은 새장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소품은 특이하게도 새가 새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장 밖에 있는데, 아이를 새장 속 새처럼 가둬서 키우려 하지 말고 새장 밖에서 자유롭게 키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에, 학원에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 과외까지 시키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엄마가 만든 새장 속에서 아이를 키우지 말고 아이가 많은 사람과 새로운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엄마학교는 원칙적으로 여자들만의 공간이다. 때문에 수업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은 여자다. 그러나 이곳에도 한 달에 한 번 금남의 원칙이 깨지는 날이 있다. 1회 3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요 특강 기쁜엄마 과정에는 부부가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아빠도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좋은엄마 과정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별히 토요 특강에는 아빠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날은 엄마들보다 덩치가 큰 아빠들을 고려해서 총 수업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작은 엄마학교지만 아빠들도 넉넉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2008년부터는 부부가 함께 수업을 들으면 강의료도 20%나 할인해준다. 아이를 어디에 딱히 맡겨둘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부부가 함께 들을 수 없다면 함께 신청하고 부부가 각기 다른 날짜에 수업을 들어도 된다. 이 경우에도 부부 신청으로 20% 할인되는 혜택은 동일하다.

Tip 2. 좋은 아버지 교실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한 공부. 아빠와 뭐 하고 놀까? 좋은 아버지의 기본을 배운다 지역 사회교육협의회 '좋은 아버지 교실' 리뷰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5주간의 좋은아버지교실의 마지막 수업 시간. 한 아버지는 이런 소감을 밝혔다. 자신이 아버지라 불릴 수 있도록 해준 아내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불러준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는 그의 고백 한마디에 그는 이미 좋은 아버지의 경지에 올랐음을 느낄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좋은아버지교실은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총 5주,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되는 아버지교실은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 관계 맺는 법, 그리고 부부가 함께 교육관 세우기라는 5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사실 좋은아버지교실은 개강되기

- 장소 :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2번 출구에서 100m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중앙본부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매월 첫째 주 개강
- 수업료 : 6만원
- 문의 : 02)424-8377, www.kace.or.kr



가 참 어려운 수업 중 하나다. 정원이 10명으로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신청하는 아버지들도 자발적으로 참가 신청을 하기 보다는 부인에게 등 떠밀려 오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자기는 좋은 아버지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등 떠밀려 온 아버지들 중에는 첫 수업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대해왔는지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날 마지막 수업에서도 진작 이런 수업을 통해 아이와 좀 더 가까워지지 못한 채 나쁜 아버지로 살았던 시간을 후회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는 좋은 아버지일까? 나쁜 아버지일까?

그래도 선뜻 좋은아버지교실에 참가해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아이의 친한 친구 5명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 실제로 좋은아버지교실의 첫 수업에서 진행되는 테스트 질문 중 하나인 이 질문에 대답하는 아버지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아이의 친한 친구들을 모르는 아버지다 보니 아이의 관심사를 모르는 것도 당연지사. 자연스레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나눌 대화 소재도 바닥이다. 결국 둘이 앉아 있으면 서먹한 사이가 되고 만다. 때문에 수업에서는 일단 아이를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이에게 다가서는 법을 알려준다. 그 방법의 첫걸음은 바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친구에게 놀림을 당해 속상해서 울먹이며 아버지를 찾는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먼저 안아주고 그 상처를 위로해주라는 것이 포인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서는 이런 위로나 보듬어 안는 것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단다. 대개 아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부모로서 가르치고 나무라는 것이 더 앞서기 때문이다. 좋은아버지교실에서는 매주 배운 방법을 숙제로 내주어 집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해볼 수 있게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과정과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중압감 때문인지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모두 숙제를 해온다고. 그러다 보니 5주 정도면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의 아빠가 될 수밖에 없다. ㉔



[출처 : 팻씨]